

캐나다 원주민 역사에 투영된 ‘존중’과 ‘평화’

11 광주비엔날레 눈여겨볼 파빌리온

〈2〉 이강하미술관

긴 붉은 천이 숲을 가로질러 한 사람의 몸과 고향을 잇는다. 공중에 매달린 초록빛 원반은 하나의 커다란 그릇을 만들고, 흔히 볼 수 있는 관광 기념품 티셔츠에는 강재 이주와 동화의 역사가 새겨진다.

서로 다른 모습의 작품들은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우리는 다른 존재와 땅을 존중하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제16회 광주비엔날레 캐나다 파빌리온 ‘스칸나 고와 강? 당신은 커다란 평화를 품고 있습니까?’가 오는 11월15일까지 전남광주 남구 양림동 이강하미술관에서 개최된다.

캐나다가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에 참여하는 것은 올해로 세 번째다. 개교 150주년을 맞은 온타리오 예술디자인대학교와 이강하미술관이 협력한 이번 전시에는 캐나다 원주민 네이션 가니엔게하가 (Kanien'keha)에 뿌리를 둔 여성 작가 셀리 니로, 멜리사 제너럴, 한나 클라우스가 참여한다.

온타리오 예술디자인대학교 온사이트 갤러리 총괄 디렉터이자 원주민 미술 큐레이터인 라이언 라이스가 기획하고 이선 이강하미술관 학예실장이 협력 큐레이터를 맡았다.

세 작가는 사진과 영상, 조각, 설치 등을 통해 땅과 기억, 주권, 사회 정의를 이야기한다.

주목할 점은 원주민이 자신의 모습과 역사, 이야기를 스스로 표현하고 해석하는 주체라는 것이다.

전시 제목인 ‘스칸나 고와 강?’은 가니엔게하어로 ‘당신은 커다란 평화를 품고 있습니까?’라는 뜻의 인사말이다. 이 말은 호데노쇼니 연맹이 오랜 세월 이어온 ‘위대한 평

캐나다 파빌리온 ‘스칸나 고와 강? 당신은 커다란 평화를 품고 있습니까?’



이강하미술관 캐나다 파빌리온 전경과 한나 클라우스작 ‘그릇’(가운데)



멜리사 제너럴작 ‘니데와게노(내가 유래한 곳)’(사진 위), 한나 클라우스작 ‘스카이벨트’

캐나다 원주민 작가 3인, 땅·기억·주권 이야기…‘위대한 평화의 법’ 통해 전달 긴 붉은 천부터 관광 티셔츠까지…식민의 역사 넘어 ‘함께 살아가는 법’ 질문

화의 법’에 뿌리를 둔다.

이들에게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나 막연한 이상에 머물지 않는다. 서로의 관계를 돌보고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자연 환경을 책임 있게 지키는 일, 공동체를 위해 ‘좋은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관람객은 전시를 통해 ‘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가’, ‘다음 세대에 어떤 땅과 공동체를 남길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는다.

멜리사 제너럴의 대형 사진 ‘니데와게노’

(2015)에는 긴 붉은 천으로 몸을 감싼 작가가 숲을 지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뿔처럼 길게 이어진 천은 사람의 몸과 땅, 현재와 과거를 연결한다. 원주민을 역사에서 지우려 했던 시선에 맞서 자신의 존재와 고향의 관계를 다시 드러내는 작업이다.

한나 클라우스의 설치작품 ‘그릇’ (2025)은 여러 개의 녹색 아세테이트 원판으로 하나의 그릇을 만들어낸다.

작품은 17세기 원주민 네이션 사이에서 맺어진 ‘한 그릇, 한 손가락’ 합의에서 시작했다. 필요한 만큼만 취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 그릇을 비우지 않으며,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지켜야 한다는 약속이다. 한정된 자연을 함께 사용하는 공동체가 어떤 책임을 나눠야 하는지를 단순한 ‘그릇’의 형태로 보여준다.

셀리 니로는 익숙한 물건을 통해 식민의 역사를 꺼내놓는다.

영상작품 ‘더 셔츠’ (2003)는 관광지에서 흔히 판매되는 기념품 티셔츠를 이용한다. 화면이 이어질수록 티셔츠의 문구가 달라



셀리 니로작 ‘더 셔츠’

지면서 원주민이 겪은 말살과 기만, 강제 이주와 동화의 역사가 차례로 등장한다.

관광지가 누구의 땅 위에 만들어졌는지, 그 장소를 소유하고 이야기할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지를 묻는 방식이다.

라이언 라이스 큐레이터는 “평화의 철학과 세대를 잇는 책임을 함께 짚어준다는 파빌리온의 기획은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호추니엔이 제시한 ‘너는 네 삶을 바꿔야 한다’와 맞닿아 있다”며 “변화가 극적인 대규



한나 클라우스작 ‘스모킹 캡’

모 사건이나 역사적 단절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조용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생각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선 이강하미술관 학예실장은 “이강하미술관은 지난 2023년부터 캐나다 파빌리온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한국과 캐나다의 다양한 예술계 관계자들이 서로 협력하며 더욱 가깝고 깊은 관계를 맺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복기자



작품 설명하는 셀리 니로(오른쪽) 작가



Canon Store

추석 선물



플프레임 바디 + L렌즈 동시 구매 시 10만원 추가 할인

행사 대상 바디
R1, R3, R5MKII, R5, R6MKII, R6MKIII, R8

행사 대상 렌즈
RF-L 렌즈 전상품

캐논스토어

본점 | 062) 522-2000
지점 | 062) 350-8397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로2로 54 (금호월드1층 139호)



광주광역시 지정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관 포 발

(주)한양주택관리

당사는 대표자의 오랜 주택관리사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주택·빌딩·오피스텔·주상복합·원룸 등 모든 건물의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관리비 부과·수납·연체자관리·청소·경비·승강기·소방·물탱크
청소·소독** 등의 업무를 직접 대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대 표 이 범 석
(주택관리사)

사 업 내 용

건 물 관 리 업
빌딩·공동주택·오피스텔·원룸
청 소 용 역 업
경 비 용 역 업
승 강 기 관 리 업
방역소독·물탱크청소업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능안로30번길 8(문흥동)
대표전화 | **062.262.1945**